

영화로 '무형유산' 이해한다

국립무형유산원, 내달 6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영화를 통해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18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FF)가 오는 9월 6~9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영화제는 아시아 유일 무형유산 특성과 영화제다. 주제는 '솜씨'다. 주제는 '수몽(手夢) 손으로 꾸는 꿈과 희망'이다. 무형유산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 만화영화를 상영한다. 15개국 작품 27편이 4개 부문을 통해 상영된다.

4개 부문은 전 세계 인류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는 꿈과 희망에 초점을 맞춘 IFF 공식초청, 무형유산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를 선별해 영화감독·출연자·작가 등과 대화하며 영화에 관한 이야기와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이리랑 Masters', 행사 주제인 '솜씨'와 관련된 일본 장인에 관한 단편부터 유네스코이태무형유산센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솜씨 - Best of Pass', 싱가포르 헤리티지 단편영화제의 작품을 초청해 싱가포르 문화유산이 사회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살펴보는 IFF 단편 등이다.

이번 축제는 각국 무형유산이 녹아든 영화 중

에서도 관객에게 친숙한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작을 선정했다. 중국이 사랑하는 영화 '패왕별희', 플라멩코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타차나', 일본 전통 식문화가 녹아든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처절한 기억을 고전 음악 연주로 극복해가는 내용을 담은 8호의 여인, 알리스다.

한국 영화 '삼의원', '나시 태어나도 우리'와 만화영화 '코코', 호주 영화 '벙규, 마스터 킵' 등 감독, 출연자, 작가의 해설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한 무형문화재 기록영상 아카이브가 야간 특별 상영된다. 196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무형문화재 기록영화를 통해 무형유산 기록 가치를 높이고, 가을밤의 운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9월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47)의 공연과 무형유산 장인들의 솜씨를 담은 영상극이 상영된다. 7~8일에는 관



관객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공연이 펼쳐진다. 8일 오후 2시부터 '피리 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공개행사'가 전통성당에서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이어진다. 9일 만화영화 '코코' 상영을 마친 뒤에는 세계문화전문가 조승연(37) 작가 특별 강연이 열린다. /뉴스

"방송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전북과학대, 전국 K-POP 페스티벌 성료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 방송연예미디어과(학과장 현철주)에서 주최하는 제7회 전국 K-POP 페스티벌이 지난 25일 토요일 오후에 전주 MBC 공개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총상금 400만원이 지급되는 이번 K-POP 페스티벌은 가수를 꿈꾸는 전국의 고교생과 입시생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고, 방송문화를 선도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총 80개 팀이 참가하여 서류전형과 예선전을 통과한 1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K-POP 페스티벌의 예선전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지도와 콘테스트가 결합되어 실시되었으며, 본선에 진출한 17팀들은 전주 MBC 공개홀에서 저마다의 기량과 끼를 펼쳤다.

K-POP 페스티벌은 총 14팀이 수상을 하게 되며, 대상팀에는 상금 100만원과 전북과학대학교 입학시 졸업 때까지 등록금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상 3팀과 금상 3팀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전북과학대학교 입학시 졸업 때까지 등록금 7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K-POP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맡은 이만세 교수는 "이번 페스티벌은 방송연예인을 동경하는 전국 청소년들에게 방송연예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열정의 무대를 동시에 주고자 기획하였으며, 꿈과 끼를 가진 재능있는 학생들을 통해 대학 및 지역의 방송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상발표는 오는 8월 30일에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게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진안군, 공립박물관 발전 위한 중간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와 관련부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진안군 공립박물관인 진안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 2개소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과업은 전국 주요 공립박물관과 전북 공립박물관의 기본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진안군 공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이 이뤄졌다. 용역을 연구하는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삼근정 박사는 주요 전국 및 전북의 주요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를 설명하고 진안군 공립박물관과 유사한 박물관의 운영사례를 보고하면서 진안군 공립박물관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진안역사박물관은 2006년 개관 후 상설전시실 전시가 유지되고 있어 진안의 역사문화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며,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비해 수장고 공간 부족으로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물 수집 보존이 힘든 실정으로 노후화된 박물관 시설 리노베이션 추진이 필요하고, 진안가위박물관은 2016년 12월 개관하여 위치, 시설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람객이 2018년 7월 31일 기준 10,041명이 방문하며 전년 대비 170% 관람객이 증가 했으나, 단순 전시 관람으로 가위유물에 비해 협소한 전시시



진안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와 관련부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설 및 가위관련 체험에 대한 방문객들이 아쉬움을 호소한 점을 진단했다.

박물관 운영위원인 원봉진 애항운동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진안역사박물관과 가위

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이 확립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 서노송예술촌 완성도 극대화...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8일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 등 노송동 일원에서 김양원 전주시장과 양도식 사회정책지원단장,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연계된 18개 관계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행정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시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고 사업별 시너지효과 창출로 서

노송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양원 부시장은 "각 부서별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전주시 중점사업인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행정협의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5일 열리는 행정협의회 2차 회의는 9개 부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 협의회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송호철 기자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도일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8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도일(56) 조선대학교 초빙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도일 신임대표는 문화평론가로 활동, 극단 신명의 단원을 거쳐 극단 신명 대표, 영



화 '화려한 휴가' 홍보이사,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극단과 문화교류재단에서 기획과 조직 관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과 한국드라마학회 이사 등의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 분야의 유통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도일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